

즉 이상의 예만 보면 ‘다’는 김영희(1983)의 주장처럼 담화 영역에 있는 대상을 빠짐없이 모두 지칭하는 양화 표현, 즉 전칭양화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다’는 항상 전칭양화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3) 다 이긴 바둑을 마지막에 역전 당했다.
- (4) 원 세상에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 (5)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 예문에 쓰인 ‘다’는 ‘모두’라든지 ‘전부’와 같은 확실한 전칭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없다.

- (3') ?모두 이긴 바둑을 마지막에 역전 당했다.
- (4') ?원 세상에 별 말씀을 모두 하시는군요.
- (5') ?뭐 이런 게 전부 있어?

앞의 예문 (1)-(2)에서의 ‘다’와 (3)-(5)에서의 ‘다’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는 담화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제시된 개체들을 남김없이 지칭하는 개체양화사로 사용된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담화 개체를 묶는 양화사가 아닌, 술어가 기술하는 사건을 묶는, Davidson(1980)의 이론에서 말하는 사건양화사로서 쓰이고 있다.²⁾ 사건양화사로서의 ‘다’는 개체양화사 때와는 달리 복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다’가 복수의 전칭양화사라는 주장은 개체양화사로서의 ‘다’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는 의외성, 실망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칭양화사 ‘모두’와 구별된다.

아울러 사건양화사로 사용되는 ‘다’는 전칭양화사와는 달리 다음 4장에서 볼 암묵적 가정(tacit premise)이 성립되지 않는 맥락에서는 부정의 함축(negative implicature)을 유발할 수 있다.³⁾

- (6) 다 이긴 바둑이었죠. +> 바둑을 이기지 못했다.

2) $e <e, t>$ (1990)

Partee(1991) D-

A-

3) 'A +> B' 'A가 B' 'A B' 'A가 B' 'A +/> B' 'A가 B' 'A ⇒ B' 'A가 B'

- (7) 부산에 다 왔다. +> 아직 부산에 도착하지 못했다.
- (8)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내일 야유회는 다 갔군. +> 야유회를 못 갈 것이다.

반면에 전칭양화사는 그런 부정적 함축을 유발하지 않는다.

- (9) 한국 기사들이 모두 이겼다. +/> 한국 기사들이 이기지 못했다.
- (10) 모두 부산에 일찍 도착했다. +/> 부산에 도착하지 못했다.
- (11)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야유회를 떠났다. +/> 야유회를 못 갔다.

반대로 전칭양화사는 다음 (12)에서와 같은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사건양화사로서 ‘다’는 (13)에서 보듯 함의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 (12) 모든 여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다. → 여당 국회의원 홍길동은 찬성했다.
- (13) 이제 다 왔으니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 ⇨ .

이상에서 ‘다’는 전칭양화사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보았는데 특히 ‘다’가 지닌 부정적 추론은 다음 문장이 의미적으로 이상한 것을 설명해 준다.⁴⁾

- (14) ?다 이긴 바둑을 계속 잘 지켜 크게 이기고 말았다.
- (15) ?부산에 다 왔는데 결국 부산에 도착했다.
- (16) ?하늘이 이렇게 밝으니 내일 야유회는 다 갔다.

‘다’를 단순히 전칭양화사로 본다면 위 예문에서 본 부정의 함축과 함의 등의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다’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 ‘다’는 총칭양화사인가?

앞 장에서 ‘다’는 개체양화사로 쓰일 때는 전칭양화사의 의미를 갖지만, 사건양화사로 쓰일 때는 전칭양화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는 ‘다’를 총칭양화사(generic quantifier)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 (17)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4) 사건양화사로서 ‘다’가 부정의 함축을 유발하는 것은 Jackson(1995)이 말하는 부정을 목격할 조건(negative witnessing condition)이 매우 높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 남자들은 늑대다.

여기서 ‘남자들’이라는 복수보통명사는 모든 남자들, 즉 노인으로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을 전부 빠짐없이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보통’이라는 뜻의 총칭양화적 해석이 자연스럽다. ‘다’는 이런 총칭적인 주어와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어서 다음 (19)와 위의 (18)은 둘 다 (20)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19) 남자들은 다 늑대다.

(20) [Gen x: Man(x)] Beast(x)

예문 (18)이나 (19)는 모두 “하지만 우리 오빠는 순한 양이다”라는 문장을 붙여도 의미상으로 이상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를 허락하기 때문에 총칭적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는 총칭적 문장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술어가 Kratzer(1980)가 말하는 무대 단계(stage-level)일 경우와 개인 단계(individual-level)일 경우에 따라 총칭적/전칭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

(21) 남자들은 다 늑대다. [Gen x: Man(x)] Beast(x)

(22) 남자들은 다 외근 중이다. [All x: Man(x)] On-Duty(x)

즉 (21)에서는 술어가 개인 단계의 술어이기 때문에 총칭적 해석이 가능한 반면, (22)에서는 술어가 무대 단계의 술어이기 때문에 전칭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23) 남자들은 다 늑대인데, 우리 오빠는 순한 양이다.

(24) ?남자들은 다 외근 중인데, 우리 오빠는 외근 중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다’는 예문 (4)-(5)에서 보았듯이 종종 화자의 태도, 즉 의외라든지 실망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총칭양화사는 그런 추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다’가 항상 총칭적 맥락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은 다음 예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5) 핑은 알을 낳는다.

(26) ?핑은 다 알을 낳는다.

(25)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총칭적 해석의 문장인 반면, (26)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다’는 ‘거의 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6)에

는 ‘다’ 대신 ‘거의 다’를 대입해도 의미적으로 이상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사건양화사로 쓰인 ‘다’는 일반적으로 총칭적 해석을 낳지 않는다는 점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7) 이 차는 목적지에 다 왔으니 더 이상 가지 않는다.

(28) 저수지의 물이 바닥까지 다 말라 버리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다’는 양화의미적 중의성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29)와 같은 문장은 (30a)-(30c)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29) 철수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다 그렸다.

(30) a. 철수 아버지의 초상화는 n개가 있는데 이 n개 모두 철수가 그린 것이다.

b. 철수는 아버지의 초상화 그리는 작업을 마쳤다.

c. 철수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거의 끝마쳤다.

이 중 (30a)는 이미 존재하는 복수 개체를 빠짐없이 지칭하는 경우, 즉 ‘죄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서 전칭양화사와 같은 기능을 하며, (30b)는 술어가 기술하는 사건이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런 술어 행위의 결과 하나의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30c)는 종결상의 동사(telic verb) 중의 하나인 달성동사(accomplishment verb)가 지시하는 사건의 종결점에 거의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완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체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은 (30b)는 (30c)와 엄격히 말해 다른 상황을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4. Strawson 함의

von Fintel(1999)이 제안한 Strawson 함의란 전통적 논리학에서의 표준적인 개념의 함의와는 달리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전제로 하는 것이 분명히 정의될 경우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래 (31a)가 참이라고 해서 (31b)도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표준적인 함의에 의하면 (31a)는 (31b)를 함의한다고 볼 수 없다.

(31) a. Only John ate vegetables for breakfast.

b. Only John ate kale for breakfast.

즉 (31a)로부터 (31b)를 직접 추론해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31a)를 발화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John ate kale for breakfast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런 맥락에서 (31a)로부터 (31b)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타당해진다. 즉 비록 문장에 직접 표현되거나 발화된 적은 없어도 John ate kale for breakfast라는 것이 암묵적 가정(tacit premise)으로 인정된다면 (31a)에서 (31b)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맥락의 일부로서 또는 화자와 청자간에 공유된 가정으로서 전제된 명제나 고정된 함축이 있을 경우 이 숨은 의미가 추론에 추가적 가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가정에 의해 함의가 성립할 경우 이를 Strawson 함의라고 부른다.⁵⁾ Strawson 함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1)의 예문과 같은 only를 포함한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일단 (31)과 같은 문장에서 only의 의미 기능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von Fintel(1996: 104)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2) [only] (x) (P) is defined only if P(x) = True.
 If defined, [only] (x) (P) = True iff $\neg \exists y \neq x: P(y) = \text{True}$.

위의 정의와 진리 조건을 이용하여 (31a)로부터 (31b)로의 Strawson 함의 과정을 세분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Kale is a vegetable. <---- 개별 어휘의 하의 구조
 John ate kale for breakfast. <---- 이미 전제되어 받아들여진 숨은 가정⁶⁾
 Only John ate vegetables for breakfast. <---- 실제 발화된 내용

 Only John ate kale for breakfast. <---- 가능한 결론

그런데 ‘다’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Strawson 함의적 추론이 가능한 것을 보기 위해 우선 다음 축구 시합과 관련된 예문을 보자.

(33) 후반 종료 1분을 남겨 놓고 한국이 4:0으로 앞서고 있다.

위의 예문을 들었을 때 보통의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33') 한국이 이겼다.

5) von Fintel(1999)은 Strawson 함의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Ladusaw(1980)의 하향함의적 연산자가 아닌 only의 의미영역 안에 부정극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6) 가 (32) only

엄밀히 말해 전후반 정해진 시간을 다 마친 후에야 승부를 결정하는 축구의 규칙이나 실제적으로도 모든 가능한 상황을 전부 고려하면 (33)에서 (33')을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대신 (33)이 참이라면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든지 '한국이 거의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Strawson 함의 개념이 없는 전통적인 논리에서의 타당한 추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구 시합의 경우, 특히 그것이 수준 높은 팽팽한 국가대항전의 경우라면 종료 1분을 남기고 4:0으로 앞서고 있으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습은 가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33)으로부터 (33')을 추론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습은 가정이 암묵적으로 정의된 맥락이라면 누구나 (33)이 (33')을 Strawson 함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암묵적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즉 한국 팀은 1분을 남겨 놓고 곧잘 수비가 무너져 5점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그런 가정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33)으로부터 (33')이 추론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로 여행하는 운전자기 서울로 들어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를 먼발치에서 보고 다음 (34)와 같이 말했다고 하면, 이는 보통 (35)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34) 서울에 다 왔다.
- (35) 서울에 도착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최후의 순간 서울의 시계를 넘지 않고 유턴을 해서 다시 하행선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세우고 수원 쪽으로 걸어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34)는 (35)를 표준논리적으로 함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든지, 서울에 꼭 불일이 있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34)를 (35)로 받아들이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숨겨진 전제나 가정을 이용하여 함의적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Strawson 함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Strawson 함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함의와 관련된 연산자가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사건양화사 '다'의 경우 이를 포함한 문장은 그 문장을 발화한 사람의 믿음의 세계에서 그 문장이 실현될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는 Kratzer(1981)가 제안한 가능세계적 개념을 확장하여 expect에 대한 의미를 토대로 정의될 수 있다.⁷⁾ 우선 expect에 대한 Kratzer식 의미 분석은 다음과 같다.

$$(36) [\text{expects}]^{f,g}(p)(S)(w) = \text{True iff } \forall w' \in \max_{g(S,w)}(f(S, w)): w' \in p$$

7) sorry glad가 want Kratzer(1981)

위 (36)의 정의에서 f 는 개체와 세계의 쌍으로부터 세계의 집합으로의 함수인 ‘양상 기반 함수(modal base function)’를 말하며, g 는 개체와 세계의 쌍으로부터 명제의 집합으로의 함수인 ‘순서잡기 원천 함수(ordering source function)’이다. 즉 명제 내용 p 를 논항으로서 갖는 expect를 포함한 문장은 w 라는 세계에서 주어 S 와 w 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w' 가 가능한 세계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일 경우 참이 된다는 것이다. 함수 f 는 S 가 w 에서 판단하기에 실현 가능한 것들의 집합을 한정해 주며, g 는 이들 원소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돈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때 \max 라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실현 가능한 세계들 사이의 실현가능성의 순서(order of likelihood)를 말하는 $<_p$ 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37) For any set of propositions P , we define a strict order $<_p$ such that

$$\forall w', w'': (w' <_p w'' \text{ iff } \forall p \in P (w' \in p \rightarrow w'' \in p) \text{ and } \exists p \in P (w' \in p \ \& \ w'' \notin p))$$

즉 명제집합 P 에서 가능세계의 순서가 결정되는 방식은 만약 P 의 모든 명제들이 어떤 세계 w 에서 성립하면 w' 에서도 성립하고, w 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P 에 속한 명제들이 w' 에서는 성립하는 경우 w' 는 w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W 에 속한 세계들에서 어떤 임의의 w_n 에 대해 현재의 세계 w 에 대해 정의되는 $<_p$ 관계에서 $w' <_p w_n$ 일 경우 w' 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계로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_p$ 를 이용하여 \max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8) \quad \forall x \subseteq W: \max_p(X) = \{w \in X: \neg \exists w' \in X: w' <_p w\}.$$

이를 ‘다’의 경우에 적용하면 ‘다’는 그것이 결합한 명제 내용 p 에 대해 p 가 현재의 세계에서 비추어볼 때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아서 그 반대가 성립할 세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건양화사 ‘다’가 p 라는 명제에 적용된 결과를 $\llbracket \text{다} \rrbracket(p)$ 라고 표시하기로 하고 이를 어떤 화자 S 가 w 라는 세계에서 발화한 것을 $\llbracket \text{다} \rrbracket(p)(S)(w)$ 라고 표시하기로 하자. 이때 $\llbracket \text{다} \rrbracket(p)(S)(w)$ 는 앞에서 본 양상 기반 함수 f 와 순서잡기 원천 함수 g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9) $\llbracket \text{다} \rrbracket^{\#}(p)(S)(w)$ 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정의된다

- a. $\text{DOX}(S, w) \subseteq f(S, w)$
- b. $f(S, w) = \bigcap p \neq \emptyset$

$$c. f(S, w) - p \neq \emptyset$$

위에서 DOX(S, w)란 w라는 세계에서 S의 믿음과 양립가능한 세계들의 집합을 말한다. 이 집합은 화자가 믿음의 세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alternative)들의 집합의 일부를 구성한다. 아울러 이 대안들의 집합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세계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공집합이어서는 안 되며, '다'의 피연산자인 p의 세계를 최소한의 원소로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32)에서 only를 포함한 문장에 대해 정의한 것처럼, $\llbracket \text{다} \rrbracket^{fs}(p)(S)(w)$ 가 정의될 수 있고, Strawson 함의에 의해 $\llbracket \text{다} \rrbracket^{fs}(p)(S)(w)$ 는 위에서 언급한 순서 선택함수 max에의 적용을 받아 $\forall w' \in \max_{g(S,w)}(f(S, w)): w' \in p$ 이면만 참이 된다.

이상에서 본 '다'의 정의 조건과 '다'를 포함한 문장의 진리 조건이 실제 '다'의 해석에 작용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40)에서 a와 b 사이에는 표준적인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0) a. 차들이 많이 밀리는 것을 보니 서울에 다 왔다.
 b. 차들이 많이 밀리는 것을 보니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별도의 반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가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한 (40a)를 발화한 화자는 '다'를 통해 현재 가장 실현가능한 세계는 서울에 도착하는 세계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즉 '다'를 포함한 문장 (40a)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다 왔다'는 것을 위에 제시된 방식으로 정확히 정의될 경우 '서울에 도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숨은 가정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40b)를 Strawson 함의하게 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타당한 추론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지만 반어적 발화(irony)로서 다음 예문에서 '다'의 쓰임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 (41)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내일 야유회는 다 갔군.
 (42)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내일 야유회는 가지 않는다.

(41)이 참일 경우 보통의 경우 (42)도 참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함의 관계 역시 표준적인 함의 관계라기보다는 Strawson 함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즉 (41)을 발화한 화자는 그의 믿음의 세계에 '내일 야유회는 갈 수 없다'라는 명제를 포함한 세계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max 함수가 이런 세계를 선택해 주는 것이 화자나 청자 모두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41)에서 (42)에로의 추론이 무리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보았던 예문 (5)에서 '다'의 역할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문 (5)를 (43)으로 다시 반복함)

(43) 뭐 이런 게 다 있어?

‘다’는 여기서 화자의 예상 세계 집합에서 순서짓기 원천 함수 g 에 의해 순서화된 세계 중에 순서가 매우 낮은 세계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43)의 발화를 통해 화자는 예상되었던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계가 아닌 세계가 실현된 것에 대해 의외라든지 실망감, 불안감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다’가 수사적 의문이나 베아리적 의문에 자주 쓰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음 발화에서 ‘다’ 역시 화자가 \max 선택함수로 가장 먼저 선택하는 실현가능한 세계와 다른 내용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원,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또한 ‘다음 예문 (45)에서 다’가 들어간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의 의미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 (45) a. 이게 뭐야?
- b. 이게 다 뭐야?

(45a)의 ‘이게 뭐야?’는 때에 따라 중립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45b)의 ‘이게 다 뭐야’는 화자의 의외성, 실망감 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다’의 의미가 위에서 정의한 대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예상을 직접 나타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6)과 같은 문장에서 ‘다’는 전칭의 의미를 갖는 개체양화사가 아니라 화자의 예상과 배치되는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나타내는 사건양화사로 기능한 것으로 보아야 비로소 그 문장의 적절한 의미 해석이 가능해진다.

(46) 다 그런 거지 뭐.

보통 ‘다’는 ‘모두 다’라든지 ‘모조리 다’, ‘거의 다’, ‘대개 다’에서처럼 잉여적인 강조 표현으로 생략이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41), (43)–(46)의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한데 이는 ‘다’를 단순히 전칭양화사나 강조 부사로만 보는 분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화자의 믿음의 세계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순서 짓기와 선택함수를 설정하는 우리의 분석에서는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

5.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다’가 사건양화사로 쓰일 때 표준적인 함의 개념으로써는 잘 설명할 수 없는 추론 과정을 von Fintel이 제안한 Strawson 함의라는 개념을 설정

하면 별 문제 없이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를 위해 ‘다’를 포함한 문장이 정의될 수 있는 조건과 ‘다’를 포함한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실현가능성(likelihood)과 순서짓기(ordering)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명시함으로써 ‘다’가 보여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포함한 비표준적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김영근. (2000). 국어 수량사 연구. 대구: 문창사.
- 김영희. (1983).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서울: 탑출판사.
- 노대규. (1988). 한국어 수량사구의 문법. 국어의미론 연구. 국학자료원.
- 박금자. (1985). 국어의 양화사 연구. 국어연구 64호. 서울대학교.
- 박철우. (1990). 한국어 수량표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송현석, (1998). 국어 양화부사 ‘거의’에 대하여.
- 유동준. (1983). 국어의 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호.
- 이영현. (1984). 양화사의 의미표지와 해석. 서울: 한신문화사.
- 이익섭. (1994). 국어학개론. 서울: 학연사.
- 채완. (1983).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 Davidson, D.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Horn, L. (1997). All John's children are as bald as the King of France: existential import and the geometry of opposition.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33.
- Jackson, E. (1995). Weak and strong negative polarity items: licensing and intervention. *Linguistic Analysis* 25: 181-208.
- Kearns, K. (2000). *Semantics*. London: Macmillan Press.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H. J. Eikmeyer and H. Rieser, eds.,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in Word Semantics*. Berlin: de Gruyter, 38-74.
- Ladusaw, W. (1980). On the notion of 'affective' in the analysis of negative polarity items. *Journal of Linguistic Research* 1: 1-23.
- Partee, B. (1991) Adverbial quantification and event structures.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7: 439-456.
- Strawson, P. F. (1952). *Introduction to Logical Theory*. London: Methuen.
- von Stechow, P. (1999). NPI-licensing, Strawson entailment, and context

dependency. *Journal of Semantics* 16: 97-148.

von Stechow, P. (2001). Counterfactuals in a dynamic context.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IT Press.